

# 목어

## 분노 거두는 법

반야(般若)는 선과 악의 분별 없이 지극히 맑고 밝은 마음의 본성(本性)을 말한다. 불교의 깨달음은 이 반야의 마음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탐욕심은 중생의 마음이며, 그 탐욕심에 이끌려 인간은 업을 짓고 과보에 고통 받으며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성내어 그로 인해 다시 업을 지어 괴로움의 헛바퀴만 돌아오고 있다.



<법구경(法句經)에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끝내 원망은 쉬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만이 원망이 사라지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고 하였다. 먼저 나만 괴로움을 당했다는 생각보다 왜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한 공격을 해오는가를 참구해 보고 원망의 화근을 녹여야 한다.

보복행위가 우선은 시원할 지 모르나 보복당한 상대는 다시 나에게 보복의 과보를 되돌려 주게 된다. 미국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테러를 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 초강대국을 자처하고 있는 마당에 보복에 주력하겠다고 하니 그 불길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세계 60억 인구의 눈이 미국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파괴와 살상으로 얼룩질 또 한편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지구촌 인구 모두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으로 경계심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이 모든 사태는 같은 중동 땅에서 태어난 유대민족과 아랍민족간의 종교적 이해에서 비롯된 대를 잇는 원한의 보복행위일 뿐이다. 다시 <법구경>의 한 구절을 마음에 익혀보자.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 악한 사람은 큰 죄를 받는다."

보복은 또 다른 원한만을 불러들일 뿐이다. 미국이 자처해서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두둔할 일도 아니고, 맞았다고 되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남을 짓밟아서는 안된다. '왜?' 라는 자기심으로 참회하여 마음 본성에서 반야 지혜를 찾아 극락정토를 만들어야 한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 ▲이번 참사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

정진홍= 인간의 야수성, 이질적인 문명간의 화해할 수 없는 갈등, 더 구체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충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뉴욕이나 워싱턴의 참사 못지 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소식을 접하고 환호하는 아랍의 정서다. 그 정서를 살피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아무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강남=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있지만, 종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적, 인종적, 문화적 갈등과 불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김용표=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예언한 바와 같이, 냉전 종식 후 서로 다른 종교 문명간의 갈등이 점차 증폭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서방 제국이 이슬람과 유대인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를 지지해 온 것도 이번 테러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잘못된 교의(敎義)의 산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이번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종교의 어떤 속성이 이러한 사태를 불렀다고 보는가.

정진홍=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이 제시한 종교만이 절대적이라고 배타적으로 주장한다. '다름'을 곧 '그들'으로 등가화해 버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슬람교를 위한 전쟁, 자비를 위한 증오, 순종을 위한 살육을 진정한 신앙으로 여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문명은 돈독하고 순수한 신앙과 맹목적인 광신이 종교적 속성에 공히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종교는 한없이 고상한 덕목을 실천할 수도 있고, 동시에 야수성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김용표= 종교배타주의를 낳는 교리적 특징은 이원론적 교리 구조, 유일신관, 선민주의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리에 있다가 보다는 종교 집단이기주의에 바탕한 배타주의에 있을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의 반성이 절실한 때다. 종교를 이용하려는 정치지도자들도 문제다.

▲종교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참사를 부른 직·간접적 원인으

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정진홍= 아무래도 정치·경제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아랍권을 철저히 번두리로 묶어두려는 힘과 이에 저항하며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충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강남= 부시 정부의 강성 일변도 정책도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다. 김용표= 폭력에 대한 예찬이나 인간의 야수성을 부추기는 물질문화가 대량 살상을 쉽게 일으키게 한다. 특히 이번 테러는 정치적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살육의 성격을 띤다. 이 점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또 이 과정에서 우려할 부분과 그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정진홍= 어떤 형태로든 미국은 보복할 것이고 아랍도 처절한 저항을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가 이 문제를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게 할 것

오강남=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이 이

번 일을 전쟁으로 간주하는 이상 어떤 무력도 불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무력보복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부시 정부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처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 그리고 '큰 나라는 스스로를 아래에 둔다'는 진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본다.

김용표= 미국은 강력한 보복과 응징에 나설 것이고, 결국 폭력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것이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참고 용서함으로써만이 사라진다'는 <법구경>의 진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를 피로 갚는 복수는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정진홍= 어떤 형태로든 미국은 보복할 것이고 아랍도 처절한 저항을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가 이 문제를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게 할 것

오강남= 가장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직면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해야 할 일은 몸을 자제를 되살피는 일이다. 한 대 맞았으니 나는 두 대 때려야겠다는 것은 문제의 증폭이지 해결이 아니다. 왜 맞았는지, 왜 때렸는지를 물어야 한다. 차분한 성찰이 시작될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없으리라는 확언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법 모색을 그만둘 수도 없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해 달라.

김용표= 약자인 팔레스타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아랍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홍= 가장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 “피를 피로 갚는 복수” 악순환 낳을뿐”

## 긴급 좌담

## 미국 테러 대참사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성 등 미국 심장부를 강타한 상상을 초월한 테러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것은 물론, 향후 인류의 공존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게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이 문명사적 측면에

서 세계질서 재편 등 큰 변화의 예고를 알리는 징후라는 예측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본지는 14일 사태의 본질을 짚어보고 인류의 공존은 불가능한 것인지, 분석해보는 몇 가지 의제를 가지고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



정진홍 교수 (서울대 총장관)

“聖戰·자유수호 등  
어떠한 논리도  
살육 정당화 안돼”



오강남 교수 (연세대 법학대학원장)

“생명존중은  
인류 최상의 가치  
무엇도 대신 못해”



김용표 교수 (연세대 법학대학원장)

“종교의 배타성  
갈등과 불화 조장  
지도자들 반성 절실”

## “폭력 예찬·야수성 부추기는 문화 지양”

## “共生·不二 가르침 인류가 기댈 언덕”

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정진홍= 아무래도 정치·경제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아랍권을 철저히 번두리로 묶어두려는 힘과 이에 저항하며 자존심을 지키려는 의지가 충돌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강남= 부시 정부의 강성 일변도 정책도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다.

김용표= 폭력에 대한 예찬이나 인간의 야수성을 부추기는 물질문화가 대량 살상을 쉽게 일으키게 한다. 특히 이번 테러는 정치적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살육의 성격을 띤다. 이 점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또 이 과정에서 우려할 부분과 그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정진홍= 어떤 형태로든 미국은 보복할 것이고 아랍도 처절한 저항을 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노와 증오가 이 문제를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게 할 것

오강남= 가장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직면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해야 할 일은 몸을 자제를 되살피는 일이다. 한 대 맞았으니 나는 두 대 때려야겠다는 것은 문제의 증폭이지 해결이 아니다. 왜 맞았는지, 왜 때렸는지를 물어야 한다. 차분한 성찰이 시작될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없으리라는 확언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법 모색을 그만둘 수도 없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해 달라.

김용표= 약자인 팔레스타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아랍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홍= 가장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직면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해야 할 일은 몸을 자제를 되살피는 일이다. 한 대 맞았으니 나는 두 대 때려야겠다는 것은 문제의 증폭이지 해결이 아니다. 왜 맞았는지, 왜 때렸는지를 물어야 한다. 차분한 성찰이 시작될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없으리라는 확언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법 모색을 그만둘 수도 없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해 달라.

김용표= 약자인 팔레스타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아랍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홍= 가장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직면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 해야 할 일은 몸을 자제를 되살피는 일이다. 한 대 맞았으니 나는 두 대 때려야겠다는 것은 문제의 증폭이지 해결이 아니다. 왜 맞았는지, 왜 때렸는지를 물어야 한다. 차분한 성찰이 시작될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없으리라는 확언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법 모색을 그만둘 수도 없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해 달라.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창종(개명) 및 초대종정 추대법회 봉행 안내

## 창종(개명) 광고

일심으로 삼보전에 향을 올리며 예경하옵니다.

대승의 종지를 꽃피우고자 10여년간 법륜의 기수로서 전법도생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포교활동의 선구적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는 마침내 법사행원 성취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부시 확장 편성에 의거하여 대승의 정법을 섭수행하는 보살승 법사들의 결사에 의해 한국불교대승법사종을 창종(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도성취 전법도생의 종지 종풍을 개양하고 불교발전과 국가발전 및 민족중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세간 법도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여래의 불사를 전개하고자 대승보살승의 불교종단으로 그 정체성을 갖추고 초심의 행보로 한국불교대승법사종의 창종을 공포합니다.

이제 본 종단의 전 종도는 불조혜명이 법륜상전 되어지도록 보살학법을 힘써 수행하고, 종지의 사표아래 일심동체가 되어 종단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을 삼보전에 지극히 다짐합니다.

-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종도 일동 -

## 임원 광고

### 종정 강월인 대종사

사서실장 박 선 를

총무원장 박 지 일  
 규정부장 조 남 천  
 총무부장 박 봉 정  
 재무부장 이 무 착  
 사회부장 정 정 행  
 교학부장 정 준 제  
 포교부장 임 만 행

각 지방 총무원장  
 서울 경기 총무원장 정정행  
 부산 총무원장 김일겸  
 인천 총무원장 이세정  
 광주 총무원장 조남천

원로원장 진호 무애  
 종회의장 이 정 광  
 부의장 김 일 겸  
 의원  
 남천 남경 봉정 무착  
 정행 준제 만행 세정  
 진제 자명 각원 성상  
 월산 지덕 보리심

상벌위원장 김 혜 공  
 부위원장 이 지 덕  
 강원 총무원장 정남경  
 경남 총무원장 김혜공  
 경북 총무원장 이진제

증명 박도암 큰스님(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신인왕 큰스님(한국불교여래종 종정)  
 하순성 큰스님(대한불교법사종 종정)

## 봉행위원회

· 고문 : 진호 무애 태정  
 · 봉행위원장 : 정광 자명 · 부위원장 : 혜공 각원  
 · 집행위원장 : 일겸 · 부위원장 : 남천  
 · 재무 : 무착 · 기획 : 봉정 · 섭외 : 정행 · 홍보 : 세정  
 · 위원 : 정향 보리심 부루나 월산 성상 용담 종본  
 묘음화 효정 실담화 원명화 법탄 호정 서정  
 지산 일공 성양 무등심 보산 지열 보월

■ 법회일시: 불기 2545년(2001년) 9월 22일 오후 2시  
 ■ 법회장소: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 서래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 113-1)  
 ■ 주 관: 한국불교대승법사종 개산 봉행 준비위원회  
 ■ 후 원: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사불교신문 법사위원회 법사대학총동문회  
 ■ 연락처: 총무원 (051) 556-8551, 552-8554 서울 (02) 720-1836  
 ■ 차량안내: 9월 22일 오전 8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관광버스 출발 일제경비무료, 9월 19일까지 서울 ☎ 720-1836, 733-1959로 접수